

서울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에 관한 연구: 삶의 수준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임 재 현**

A Study on the Extra Costs among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in Seoul : Using the Standard of Living Approach*

Jaehyun Lim**

요약 : 본 연구는 서울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삶의 수준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계측하고, 추가비용의 빈곤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제2차 서울시 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 경상소득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수준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가 약 2배 이상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계측한 결과 월평균 57,32만 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비장애인가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추가비용을 고려할 경우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빈곤율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빈곤율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 장애인가구의 빈곤감소와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소득보전의 확대가 필요하며, 급여수준도 증액되어야 한다.

주제어 : 삶의 수준 접근방식, 추가비용, 장애수당, 빈곤율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xtra costs among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in Seoul by using the standard of living approach and to analysis the influence of extra costs on poverty in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For this, 'The 2nd Seoul Welfare Panel Study' data were used. The earned income, income from real estate, and ordinary incom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households without the disabled.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were about two times lower than those of the households without the disabled. The extra costs among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in Seoul were estimated as a monthly average 573,200won. The absolute poverty rates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households without the disabled. Included the extra costs among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the absolute poverty rates were sharply increased. The results of relative poverty rates also showed similarly. Consequently, for poverty reduction and improvement of standard of living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in Seoul, the deficit-covering of extra costs of disability should be expanded, also the levels of benefit should be increased more than others.

Key Words : standard of living approach, extra cost of disability, disability allowance, poverty rate

* 이 논문은 제2회 서울시 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논문을 수정·보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서울도시연구 심사위원님과 편집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Doctor of Social Welfa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jaehyun@paran.com, Tel: 042-821-6471

I. 서론

장애인은 장애에서 비롯된 낮은 교육수준, 직업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인적자본의 취약성, 사회전반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결과로 취업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취업 중에 있더라도 주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게 되어 빈곤의 위험이 높다(Elwan, 1999). 또한, 장애인가구는 의료비, 장애보조기구 구입·유지비, 교통비, 보호·간병비 등과 같은 추가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이선우, 2008; 김성희 외, 2011). 결국 장애인가구는 소득측면에서 수입 감소와 지출측면에서 추가비용의 발생으로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훨씬 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이익섭·정소연, 1997).

국내·외의 실증적 연구들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장애인가구의 삶의 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Berthoud et al., 1993; Burchardt, 2003; Kuklys, 2004; Jenkins and Rigg, 2004; Zaidi and Burchardt, 2005; Gannon and Nolan, 2006; Saunders, 2007; Burchardt, 2008; Cullinan et al., 2008; Meyer and Mok, 2008; 이선우, 2005; 이선우, 2008; 윤상용·김태완, 2009; 이선우, 2009; 임재현, 2012). 따라서 장애인가구의 삶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추가비용을 계측하고, 추가비용이 빈곤을 얼마나 심화시키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삶의 수준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계측한 국내 연구 중 이선우(2005, 2008)의 연구는 추가비용만을 계측하였고,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를 비교하지 못하였다. 추가비용의 빈곤영향을 파악한 국내 연구 중 윤상용·김태완(2009)의 연구는 추가비용을 계측하지 않고, 이선우(2008)가 계측한 추가비용을 활용하여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

의 빈곤실태만을 비교하였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계측하고,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실태를 비교한 국내 연구로는 이선우(2009)와 임재현(2012)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전국 규모의 추가비용을 계측하였을 뿐, 서울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별도로 계측하지는 못하였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거주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며(윤상용, 2006), 추가비용 계측을 위한 삶의 수준 연구에서도 거주 지역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우, 2008; 이선우, 2009; 임재현, 2012). 또한, 빈곤측정에서도 지역의 생활비용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의 빈곤 규모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백학영, 2007). 따라서 추가비용을 전국 단위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의 생활여건을 반영한 추가비용 계측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역의 생활여건을 반영한 추가비용 계측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와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을 장애인연금제도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나 저소득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급여대상에 제한이 있고, 급여수준도 장애인가구의 낮은 소득을 대체할 만큼의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박은수, 2011). 또한, 저소득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시비 전액으로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삶의 수준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서울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계측하고, 추가비용의 빈곤 영향력을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를 비교·분석하여 서울시 장애인가구의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추가비용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extra cost)은 무료 혹은 일부 재정보조 서비스를 받고도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장애인이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 또는 이러한 욕구를 어느 정도까지 충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장애인이 경험하게 되는 박탈의 정도를 의미한다(Tibble, 2005; 윤상용, 2006).

추가비용을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장애를 가짐으로써 발생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지출인 '직접비용', 둘째, 직접적인 비용분석으로 파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미래의 비용 즉, 장애인들이 장애 때문에 갖게 되는 경험과 보호 및 치료를 제공받는 기간 동안 수입이 감소되는 잠재적 수입의 손실과 같은 '기회비용', 셋째, 많은 장애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그 밖의 생활비용과 관계된 것으로 '추가 생활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변용찬 외, 2006).

추가비용을 계측하는 방법으로 주관적 접근방식(또는 직접조사방법),¹⁾ 비교적 접근방식(또는 지출기록방법),²⁾ 예산기준접근방식,³⁾ 삶의 수준 접근방식 등이 활용된다(변용찬 외, 2006; 이선우, 2008; 윤상용·김태완, 2009; 이선우, 2009; 임재현, 2012).

추가비용을 계측하는 방식 중에서 삶의 수준 접근방식(Standard of Living Approach)은 장애

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삶의 수준을 동일하게 놓고, 그 삶의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득을 추정하여 비교하는 방식이다(이선우, 2009). 삶의 수준 접근방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모든 가구의 삶의 수준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질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동일한 소득수준이라도 장애인가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로 인해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삶의 수준이 더 낮아지게 된다. 결국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와 동일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하게 된다(Zaidi and Burchardt, 2005; 이선우, 2005; 이선우, 2009; 임재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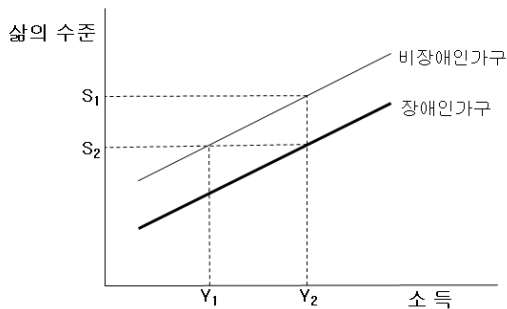
삶의 수준 접근방식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이 장애인가구의 삶의 수준을 저하시킨다는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추가비용 계측 방식에 비해 방법론적인 면에서 우위를 인정받고 있다(Jones and O'Donnell, 1995; Indecon, 2004; 윤상용·김태완, 2009). 삶의 수준 접근방식을 활용한 추가비용에 관한 외국 연구들(Berthoud et al., 1993; Indecon, 2004; Kuklys, 2004; Zaidi and Burchardt, 2005; Saunders, 2007; Burchardt, 2008; Cullinan et al., 2008)에서는 추가비용을 고려함으로써 장애인가구의 정확한 빈곤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소득과 장애, 삶의 수준의 관계

소득과 삶의 수준의 관계가 선형관계에 있다는 전제하에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소득과

-
- 1) 장애인에게 특별히 추가로 지출하는 항목의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 물어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계측하기 때문에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등 비장애인도 지출하는 비용이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 2) 표본 추출한 장애인의 모든 지출에 대해 세밀하게 측정한 결과를 비장애인 표본에 대한 지출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장애인과 유사한 비장애인을 찾거나 설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 3) 가상의 장애인을 설정한 후 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비용의 항목과 비용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관적 접근방식과 유사하지만 포커스 그룹이 합리적인 삶의 수준에 필요한 품목의 목록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삶의 수준을 선형관계로 그려보면 <그림 1>과 같다(Zaidi and Burchardt, 2005; 이선우, 2009). 장애인가구의 소득 Y_2 는 비장애인가구의 소득 Y_1 과 동일한 삶의 수준(S_2)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와 동일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Y_2 - Y_1$ 만큼의 소득이 더 필요하게 된다(임재현, 2012).



<그림 1> 소득과 장애, 삶의 수준의 관계

소득과 장애, 삶의 수준의 관계를 회귀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S = \alpha Y + \beta D + \gamma X + \kappa$$

S 는 삶의 수준 지표이고, Y 는 가구소득, D 는 장애여부, X 는 가구구성을 포함한 다른 특성 변수들로 통제변수, κ 는 상수이다(Zaidi and Burchardt, 2005; 이선우, 2005; 이선우, 2009). 비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장애, 삶의 수준에 대한 회귀 공식을 $S_2 = \alpha Y_1 + \beta D_1 + \gamma X + \kappa$ 라고 한다면, 비장애인가구와 동일한 가구특성을 가진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장애, 삶의 수준에 대한 회귀 공식은 $S_2 = \alpha Y_2 + \beta D_2 + \gamma X + \kappa$ 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가가 비장애인가구와 동일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 즉, 장애인가구의 소득 Y_2 와 비장애인가구의 소득 Y_1 의 차이를 구하는 방

법은 다음과 같다(임재현, 2012).

$$\begin{aligned} S_2 &= \alpha Y_2 + \beta D_2 + \gamma X + \kappa \\ -) \quad S_2 &= \alpha Y_1 + \beta D_1 + \gamma X + \kappa \\ \hline 0 &= \alpha(Y_2 - Y_1) + \beta(D_2 - D_1) \\ \alpha(Y_2 - Y_1) &= -\beta(D_2 - D_1) \\ \frac{Y_2 - Y_1}{D_2 - D_1} &= -\frac{\beta}{\alpha} \end{aligned}$$

위의 계산방식에 따라 동일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소득 차이를 E 라고 가정하였을 때 공식은 다음과 같다.

$$E = \frac{dY}{dD} = -\frac{\beta}{\alpha} = \frac{\text{장애계수}}{\text{소득계수}}$$

위의 공식에 따라 구해진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소득차이인 E 의 값을 장애로 인해 발생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Zaidi and Burchardt, 2005; 이선우, 2005; 이선우, 2008; 이선우, 2009; 임재현, 2012).

3.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에 관한 선행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의 72.0%가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6만 7백 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비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비 56.8천 원,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31.7천 원, 교통비 22.8천 원, 보호·간병인비 14.1천 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 간장애가 59만 7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폐성장애(50만 3천 원), 뇌병변장애(27만 4천 원), 장루·요루장애(26만 4천 원), 호흡기장애(25만 5천 원), 신장장애(24만 2천 원)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김성희 외, 2011).

삶의 수준 접근방식으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계측한 국내 연구에서 삶의 수준 척도로 내구소비재의 수, 경제적 생활상태에 대한 자가평가, 저축유무를 사용한 결과, 4인 가구 기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내구소비재의 경우 26만 6천 원, 경제적 생활상태에 대한 자가평가의 경우 46만 원, 저축유무의 경우 46만 5천 원으로 계산되었다(이선우, 2005).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생활여건을 나타내는 복합척도를 사용하여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계측한 결과, 신체경증 4만 4천 원, 신체중증 18만 5천 원, 뇌병변중증 15만 2천 원, 감각경증 1만 9천 원, 감각중증 32만 8천 원, 정신적 장애 36만 3천 원, 내부경증 13만 3천 원, 내부중증 56만 1천 원의 추가비용이 계측되었다(이선우, 2008).

윤상용·김태완(2009)은 이선우(2008)가 계측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적용하여 추가비용이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얼마나 심화시키는지 파악하였다. 경상소득에서 추가비용을 공제하기 이전에는 16.0%였던 장애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이 추가비용을 공제한 이후 27.8%로 무려 11.8%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또한, 상대빈곤율에 있어서도 경상소득에서 추가비용을 공제하기 이전에 비해 중위소득 40%, 50%, 60% 미만에서 각각 14.8% 포인트, 15.0% 포인트, 15.0% 포인트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8년) 자료의 생활여건 13개 항목을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복합지표로 설정하여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계측한 결과, 연 280.56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계측된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장애인가구의 빈곤선을 파악한 결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절대빈곤선이 최저

11.6%(8인)에서 최고 53.6%(1인)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대빈곤선에 추가비용을 고려할 경우 15.6%에서 27.8%로 12.2% 포인트 증가하였고, 중위소득 40% 이하에서는 7.9% 포인트, 중위소득 50% 이하에서는 5.4%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우, 2009).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2009년) 자료를 삶의 수준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계측한 결과, 연 194.4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계측된 추가비용을 절대 빈곤선에 반영한 결과, 절대빈곤율이 13.29%에서 22.61%로 9.32% 포인트 증가하였고, 중위소득 60% 이하 비율에서는 6.57%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재현, 2012).

윤상용(2006)은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가비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인구학적, 사회환경적, 장애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추가비용을 분석한 결과, 시각·청각·언어장애 등 감각기관 장애의 경우 기준 변수인 신체장애(지체, 뇌병변 및 안면장애)에 비해 추가 비용이 4만 원이 적은 반면, 지적장애와 내부장애는 오히려 신체장애보다 추가비용이 각각 13.8만 원과 15.2만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바텔인덱스⁴⁾는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추가비용은 4천 원이 감소하고, 장애등급은 한 등급 내려갈수록 추가비용은 1.2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늘어날수록 추가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비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바텔인덱스, 가구소득, 내부

4) 바텔인덱스는 점수가 증가할수록 신체 기능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장애가 타 변수에 비해 비교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서 장애요인이 추가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된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의 소득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조정할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 비율에서 5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고(1996년 3.9%에서 20.17%), 중위소득 60% 이하 비율에서는 약 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1996년 22.55%에서 51.47%, 1999년 14.28%에서 44.32%). 따라서 추가비용으로 인해 장애인가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uklys, 2004).

영국의 1996/97년 가족자원조사(Family Resources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추정한 결과, 비연금수급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주당 £399로 추정되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주당 £36~£203로 나타났다. 이렇게 추정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반영하여 중위소득 60% 이하 비율을 산출한 결과, 비연금수급 장애인 가구의 경우 추가비용 반영 전의 29.4%에서 45.0%로 증가하였다(Zaidi and Burchardt, 2005).

호주 통계청의 1998~1999년 가구지출조사(Household Expenditure Survey)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계측한 결과, 가구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28.9%에서 37.1%로 나타났으며, 장애 정도(0=장애나 제한이 전혀 없는 경우, 4=심각하거나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 따른 추가비용을 산출한 결과 장애 정도의 한 단위당 소득의 약 10%(9.73%~12.18%)가 산출되었다. 즉 장애 정도가 4인 경우, 소득의 40%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결과를 가구소득에 반영한 결과,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에서 추가비용을 반영하기 이전의 9.0%에서 20.4%~29.7%로 증가하였다(Saunders, 2007).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서울시 복지패널조사(Seoul Welfare Panel Study, SWPS)는 서울시복지재단(Seoul Welfare Foundation)에서 서울 시민의 삶의 양태와 복지수준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서울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자 격년으로 조사가 실시되는 자료이다(서울시 복지패널 홈페이지).

서울시 복지패널조사에서는 소득, 소비, 저축, 부채, 자산, 생활여건, 건강, 주거, 장애 및 재활 등이 조사되어 있다. 제1차 본 조사(2009년)에서는 3,665가구 7,761명이 조사되었고, 제2차 본 조사(2010년)에서는 2,893가구 6,204명이 조사 완료되었다.

따라서 서울시 복지패널조사는 서울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에 관한 연구를 하기에 적합한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10년도에 조사된 제2차 서울시 복지패널조사의 가구용 자료를 사용하였고, 소득 자료는 '2009. 1. 1~2009. 12. 31' 동안의 월평균 금액이다.

2. 삶의 수준에 대한 복합지표

삶의 수준 척도는 단순히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지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복합지표여야 한다(Zaidi and Burchardt, 2005; 이선우, 2009). 따라서 종속변수인 삶의 수준 척도는 소비내구재의 소유 여부, 저축 유무, 주관적 경제상태, 생활여건을 나타내는 복합지표 및 박탈지표 등이 활용되고 있다(Berthoud et al., 1993; Zaidi and Burchardt, 2005; 이선우, 2005;

이선우, 2008; 이선우, 2009; 임재현, 2012).

그러나 최근에는 생활여건에서 경험하는 박탈 지표를 삶의 수준에 대한 복합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이선우(2009)와 임재현(2012)은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생활여건 박탈지표 13개 항목⁵⁾을 삶의 수준에 대한 복합지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복지패널 제2차 조사의 생활여건 항목에서 돈이 없거나 부족하여 경험한 8개 항목(s10g3_1~s10g3_8)을 삶의 수준에 대한 복합지표로 설정하였다. 8개 항목은 '본인이나 가족이 끼니를 거른 경험', '두 달 이상 집세 밀린 경험',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등) 미납 경험', '자녀 공교육 한 달 이상 미납 경험',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 간 경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경험', '옷을 구입하지 못한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8개 박탈 문항 각각에 대해 경험이 있는 가구의 경우 '1', 경험이 없거나 비해당 가구를 '0'으로 설정하여 8개 문항의 합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삶의 수준 점수의 범위는 0~8까지이다. 삶의 수준 점수는 생활여건의 박탈지표이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수준이 낮고,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생활여건 8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크론바 α 값이 0.785로 나타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주요변수의 측정 및 분석방법

삶의 수준 척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할 때 투입되는 독립변수로는 소득(Y: 가구의 경상소득)과 장애(D: 장애종류 및 장애 정도)변수가 사용된다(Berthoud et al., 1993; Zaidi and Burchardt, 2005; 이선우, 2008; 이선우, 2009; 임재현, 2012).

소득변수(Y)는 세금을 제외한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으로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보호대상가구 소득, 공적이전소득, 개인연금, 사회보험,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소득변수로 비경상소득인 기타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을 사용하였으나 엄밀하게는 세후 월평균 경상소득⁶⁾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변수(D)는 장애인가구 여부를 투입하였는데, 이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동일한 삶의 수준에 대한 소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조치로 장애종류와 장애 정도에 따른 소득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윤상용(2006)은 추가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유형 및 정도, 취업여부, 개인 및 가구의 경제상태, 거주 지역을 포함시켰다. 삶의 수준 접근방식에서는 거주 지역, 자가 여부, 가구주 연령 및 성별, 이동 수, 가구원 수가 통제변수로 포함되고 있다(이선우, 2008; 이선우, 2009; 임재현,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가구 요소를 포함한 다른 중요한 특징을 가진 변수들(X)로 가

5) '2달 이상 집세 문제로 이사 경험', '공과금 미납 경험', '전기, 전화, 수도가 끊긴 경험', '자녀 공교육비 한 달 이상 미납 경험', '돈이 없어 난방 못한 경험',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간 경험', '가구원 중 신용불량 경험', '건강보험 미납으로 보험급여 자격정지 경험',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량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먹은 경험',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는데도 먹지 못한 경험'

6) 가처분소득이 아닌 이유는 서울시 복지패널의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응답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처분소득은 가구의 총소득에서 비경상소득(기타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에서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료, 세금을 공제한 소득을 말하기 때문이다.

〈표 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명		속성
종속변수	삶의 수준	생활여건 박탈 경험의 8개 문항의 합
독립변수	경상소득	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의 제공근
	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노인장애인가구 포함)=1, 비장애인가구=0
통제변수	가구주 연령	만 나이
	가구주 성별	남성=1, 여성=0
	가구원 수	총 가구원 수
	지역	25구를 5개 권역으로 구분
	자가 여부	자가=1, 비자가=0

구주의 성별과 연령, 가구원 수,⁷⁾ 지역, 자가 여부를 포함시켰다. 그 중에서 지역 변수는 서울시의 25개 구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구분된 5개 권역은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으로 구분하였다. 자가 여부는 주택소유 형태가 자가 소유인 경우 '1', 전·월세, 기타, 무상거주인 경우 '0'으로 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들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분석방법은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소득내역별 차이와 삶의 수준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삶의 수준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계측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장애인가구 변수 D의 회귀계수를 경상소득 제공근 변수 Y의 회귀계수로 나누게 되면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빈곤선에 반영하여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가구용 횡단면 가중치(SI0WT_H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장애인가구 326가구, 비장애인가구 2,567가구로 나타났다.

4. 소득과 삶의 수준에 대한 선형성 검증

삶의 수준 접근방식에서 소득과 삶의 수준의 관계가 선형관계가 아닌 비선형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Berthoud et al., 1993; 이선우, 2009; 임재현,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삶의 수준이 선형관계인지 비선형관계인지를 분산분석(ANOVA)의 선형성(test for linearity) 검증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산분석의 설명력 η^2 (에타제곱)과 회귀분석의 설명력 r^2 을 나타내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김태근, 2006).

$$F_{(k-2, n-k)} = \frac{(\eta^2 - r^2) / (k-2)}{(1 - \eta^2) / (n-k)}$$

(k: 독립변수의 범주 수, n: 사례 수)

7) 아동 수를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 수와 가구원 수의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동 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분석 결과 분산분석의 설명력 η^2 은 0.288, 회귀분석의 설명력 r^2 은 0.036으로 나타났으며 F값은 125.38($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분산분석의 설명력 η^2 과 회귀분석의 설명력 r^2 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득과 삶의 수준은 비선형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비선형관계의 분석에서는 변수를 변환(transformation)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주로 자연로그(ln), 제곱, 제곱근으로 변수를 변환하여 사용하게 된다. 삶의 수준 접근방식을 활용한 추가비용 계측 연구에서는 소득을 제곱(Berthoud et al., 1993; Indecon, 2004)하거나 자연로그로 변환(Zaidi and Burchardt, 2005; 이선우, 2005)하거나, 또는 제곱근으로 변환(이선우, 2008; 이선우, 2009; 임재현, 2012)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소득을 자연로그로 변환한 변수와 제곱근으로 변환한 변수를 각각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상소득을 자연로그로 변환한 변수의 설명

력⁸⁾보다 제곱근으로 변환한 변수의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소득의 제곱근 변수를 투입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가구주의 성별은 모든 가구에서 남성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주택 소유 형태에서 자가 비율은 장애인가구가 55.0%로 비장애인가구 53.4%보다 더 많았다. 권역별로 장애인가구는 동북권의 비율이 43.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남권(18.7%)으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가구는 장애인가구와 반대로 서남권의 비율이 32.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

<표 2> 일반적 특성

구분		비장애인가구(N=2567)	장애인가구(N=326)	전체 가구(N=2893)
가구주 성별	여성	518(20.2%)	70(21.4%)	588(20.3%)
	남성	2049(79.8%)	257(78.6%)	2306(79.7%)
주택소유 형태	비자가	1196(46.6%)	147(45.0%)	1343(46.4%)
	자가	1371(53.4%)	180(55.0%)	1551(53.6%)
권역별	도심권	219(8.5%)	38(11.7%)	257(8.9%)
	동북권	738(28.7%)	141(43.3%)	879(30.4%)
	서북권	262(10.2%)	33(10.1%)	295(10.2%)
	서남권	830(32.3%)	61(18.7%)	891(30.8%)
	동남권	474(18.5%)	46(14.1%)	520(18.0%)
	서울 외	44(1.7%)	7(2.1%)	51(1.8%)
가구주 연령	평균(S.D)	49.77(14.009)	58.02(12.327)	50.70(14.07)
가구원 수	평균(S.D)	3.23(1.266)	3.13(1.536)	3.22(1.30)

단위: 가구주 성별, 주택소유 형태, 권역별은 빈도와 비율, 가구주 연령은 세, 가구원 수는 명

8) $R=0.289$, $R^2=0.084$, $Adj\ R^2=0.080$, $F=26.283(p<0.001)$

로 동북권(28.7%)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은 장애인가구가 58.02세로 비장애인가구 49.77세보다 약 8세 더 많았다. 가구원 수는 장애인가구 3.13명, 비장애인가구 3.23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소득과 삶의 수준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소득내역별 차이는 <표 3>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소득내역은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장애인가구의 경우 월평균 230.16만 원, 비장애인가구 월평균 329.05만 원으로 비장애인가구가 98.89만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소득은 장애인가구 월평균 83.46만 원, 비장애인가구 월평균 137.24만 원으로 비장애인가구가 53.78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비장애인가구가 더 많았고, 금융소득과 보호대상가구 소득, 개인연금, 사회보험은 장애인가구가 더 많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월평균 경상소득은 장애인가구 199.44만 원, 비장애인가구 318.63만 원으로 비장애인가구가 119.19만 원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삶의 수준 점수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전체 가구 중에서 삶의 수준 점수가 0인 가구 즉, 생활여건의 박탈 경험 이 전혀 없는 가구는 2535(87.7%)가구였으며, 나머지 357(12.3%)가구는 8개 생활여건 중 하나 이상의 박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 중에서 생활여건에서 박탈을 하나 이상 경험한 가구는 73(22.4%)가구였으며, 비장애인가구는 284(11.1%)가구로 나타났다. 생활여건의 박탈점수를 합산하여 삶의 수준 점수로 산출한 결과, 전체 가구의 삶의 수준 점수 평균은 0.2840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의 삶의 수준 점수 평균은 0.5956, 비장애인가구의 삶의 수준 점수 평균은 0.2446으로 장애인가구가 약 2배 이상 더 높게

<표 3>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소득내역별 차이

(단위: 만 원/월)

구분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t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근로소득	2214	329.05	218.750	209	230.16	184.512	7.278***
금융소득	141	70.22	73.852	21	79.55	66.978	-.546
부동산소득	217	137.24	155.222	41	83.46	86.365	2.157*
사적이전소득	375	50.68	45.790	70	44.27	31.662	1.121
공적이전소득	474	15.83	13.071	161	15.78	11.493	.040
보호대상가구 소득	73	42.08	23.729	51	44.27	21.335	-.528
개인연금	73	71.66	81.027	3	81.47	99.791	-.192
사회보험	277	53.47	74.474	54	70.90	96.535	-1.257
월평균 경상소득	2567	318.63	244.153	326	199.44	180.072	10.766***

주: 각 소득은 가구단위의 합산 소득

* $p<0.05$, *** $p<0.001$

〈표 4〉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삶의 수준 점수 차이

(단위: 빈도, 점)

구분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t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삶의 수준 점수	2567	.2446	.85686	325	.5956	1.33254	-4.631***
전체 가구 삶의 수준 점수	평균=.2840, S.D=.929, 최소=0, 최대=8						

*** p<0.001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삶의 수준 점수는 높을수록 삶의 수준이 낮아지고, 삶의 수준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수준이 높은 것이므로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약 2배 이상 삶의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3. 삶의 수준 접근방식을 활용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 계측

장애인가구 변수를 설정할 때 장애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 장애가구원 1인보다는 더 많은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만 2인 만큼의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비용을 엄격하게 계산하기 위해 장애가구원 1인 가구만 변수에 투입하였다.⁹⁾

삶의 수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F값이 26.665(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인 장애인가구 여부의 비표준화 회귀계수(B)는 0.212, 경상소득 제공근의 비표준화 회귀계수(B)는 -0.02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 외 도심권, 자가 여부,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도 삶의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경상소득이 많을수록 삶의 수준은 높

고, 경상소득이 적을수록 삶의 수준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월평균 경상소득이 낮으므로 삶의 수준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begin{aligned}
 E &= -\frac{\beta}{\alpha} \\
 &= (\text{장애인가구의 계수} \div \text{경상소득의 계수}) \\
 &= -(0.212 \div -0.028) = 7.57
 \end{aligned}$$

경상소득의 계수가 경상소득 제공근의 계수이기 때문에 제공을 해주게 되면 기존의 경상소득 값과 동일해진다. 제공을 한 결과 57,3265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와 동일한 삶의 수준을 누리기 위해서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경상소득에서 월평균 57.32(연 687.91)만원의 추가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월평균 23.38만 원으로 나타난 이선우(2009)의 연구보다 약 2배 이상 더 많은 결과이며, 임재현(2012)의 월평균 15.79만 원보다 약 3배 더 많은 결과이다. 이는 서울시 장애인가구의 경우 생활여건의 박탈경험이 심각하고 생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삶의 수준이 비장애인

9) 장애가구원 1인 가구는 299가구(92.0%), 장애가구원 2인 가구는 26가구(8.0%), 장애가구원 3인 이상 가구는 없다.

〈표 5〉 소득과 장애, 삶의 수준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492	.099		4.974	.000		
장애인가구 여부	.212	.056	.070	3.791	.000	.944	1.059
경상소득 제곱근	-.028	.003	-.197	-9.061	.000	.670	1.492
도심권*	.142	.063	.044	2.262	.024	.855	1.169
동북권*	.003	.042	.001	.068	.945	.729	1.371
서북권*	.012	.060	.004	.201	.841	.823	1.215
동남권*	-.014	.049	-.006	-.280	.779	.768	1.302
자가여부	-.298	.037	-.160	-8.103	.000	.817	1.225
가구원 수	.073	.015	.102	4.922	.000	.736	1.358
가구주 성별	-.086	.045	-.037	-1.909	.056	.843	1.187
가구주 연령	.004	.001	.062	3.102	.002	.788	1.269
기준범주: 서남권	R = .291, R ² = .085, Adj R ² = .082, F = 26.665 (p < 0.001)						

* 더미변수로 서남권을 기준범주로 사용함

가구에 비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 결과이다. 따라서 서울시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와 동등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의 장애인가구에 비해 더 많은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추가비용의 빈곤 영향력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절대빈곤선은 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이 2009년도 최저생계비¹⁰⁾ 이하인 가구로 설정하였다. 장애인가구의 경우 삶의 수준 접근방식으로 추정한 장애가구원 1인에 대한 추가비용을 장애가구원 수를 반영한 추가비용¹¹⁾을 산출하여 월평균 경상소

득에서 공제한 후 절대빈곤율을 파악하였다.

장애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29.49%로 비장애인가구 12.08%보다 약 2.4배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의 경우 추가비용을 적용하게 되면 절대빈곤율이 57.97%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비장애인가구와의 비교에서도 장애인가구는 추가비용을 적용하기 이전의 차이 17.41% 포인트에서 추가비용을 적용한 후 45.89% 포인트의 차이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우(2009)의 연구에서 절대빈곤선에 추가비용을 적용하게 되면 15.6%에서 27.8%로 증가하여 19.1% 포인트의 차이를 보인 것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윤상용·김태완(2009)의 연구에서도 16.0%에서 27.8%로 증가하여 추가비용 적용 후 절대빈곤율 격차 11.8% 포인트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재현(2012)의 연구에서도 추가비용

10) 1인 가구 월 490,845원, 2인 가구 월 835,763원, 3인 가구 월 1,081,186원, 4인 가구 월 1,326,609원, 5인 가구 월 1,572,031원, 6인 가구 월 1,817,454원(보건복지부, 2009)

11) 장애가구원 1인 월 추가비용(57.32만 원) × √장애가구원수로 계산한다. 따라서 장애인가구원 2인은 81.07만 원의 추가비용이 산출된다.

〈표 6〉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가구 비율

빈곤선	빈곤가구 비율			B-A	B'-A
	비장애인가구(A)	장애인가구(B)	장애인가구(추가, B')		
최저생계비	12.08%	29.49%	57.97%	17.41%	45.89%
중위소득 60	22.50%	52.63%	75.46%	30.13%	52.96%
중위소득 50	16.70%	44.35%	70.24%	27.65%	53.54%
중위소득 40	11.56%	32.24%	64.91%	20.68%	53.35%

을 적용하기 전 13.29%에서 적용 후 22.61%로 9.32% 포인트의 결과보다 큰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 결과가 이선우(2009), 윤상용·김태완(2009), 임재현(2012)의 절대빈곤율에 비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는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가 전국적인 조사 자료가 아닌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로 서울시의 빈곤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서울시 복지패널조사 자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복지패널조사 자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식적인 빈곤율을 산출하기 힘들고, 소득과 재산조사에서 다양하고 필수적인 항목들이 일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김교성, 2010).

상대빈곤선은 가구 균등화 월평균 경상소득¹²⁾이 중위소득 60%, 50%, 40% 이하인 가구¹³⁾로 설정하였다. 또한, 가구 균등화 월평균 경상소득에서 장애가구원 수를 반영한 추가비용을 공제한 후의 중위소득 60%, 50%, 40% 이하인 가구¹⁴⁾ 비율도 파악하였다.

중위소득 60% 이하 빈곤가구의 비율에서 장애

인가구는 52.63%, 비장애인가구는 22.50%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적용할 경우 장애인가구는 75.46%로 증가하여 빈곤율 격차가 30.13% 포인트에서 52.96% 포인트로 증가하였다.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가구의 비율에서도 장애인가구 44.35%, 비장애인가구는 16.70%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적용하면 70.24%로 증가하여, 빈곤율의 격차도 27.65% 포인트에서 53.54% 포인트로 증가하였다.¹⁵⁾ 또한, 중위소득 40% 이하 빈곤가구의 비율에서는 장애인가구 32.24%, 비장애인가구는 11.56%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적용하면 64.91%로 증가하여 빈곤율의 격차는 20.68% 포인트에서 53.35% 포인트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윤상용·김태완(2009), 임재현(2012)의 상대빈곤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선우(2009)의 상대빈곤율에서 장애인가구의 중위소득 40%, 50% 미만 빈곤가구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오히려 비장애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본 연구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⁶⁾

12) 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 $\times \sqrt{\text{가구원 수}}$ 로 계산한다.

13) 가구 균등화 월평균 경상소득에 대한 중위소득은 월 144.34만 원, 중위소득 60%는 월 86.60만 원, 50%는 72.17만 원, 40%는 57.74만 원이 산출되었다.

14) 가구 균등화 월평균 경상소득에서 추가비용을 공제한 중위소득은 월 141.42만 원, 중위소득 60%는 월 84.85만 원, 50%는 70.71만 원, 40%는 56.57만 원이 산출되었다.

15) 서울시 복지패널에서 제공한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가구 비율 39.4%, 비장애인가구 비율 15.9%보다 증가한 이유는 서울시 복지패널은 가구 총소득으로 상대빈곤선을 설정하였고, 본 연구는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으로 상대빈곤선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16) 이선우(2009)의 연구에서 장애인가구의 중위소득 40% 미만 34.0%, 50% 미만 42.6%, 비장애인가구 중위소득 40% 미만 21.6%, 중위소득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의 생활비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어 물가지수¹⁷⁾를 살펴보았다. 2012년 7월 전국물가지수 105.9에 비해 서울시물가지수 106.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 특히, OECD 국가 중 국내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식품물가, 교육비, 주거비 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는데(임희정, 2012), 2012년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년동월대비 기본생활필품의 생활물가지수가 2.2%, 생선·채소·과실류의 신선식품지수는 14.0%, 집세는 4.6%씩 각각 상승하여 소비자물가지수가 2.8% 상승하였다. 이는 전국 2.5%보다 더 높은 물가 상승이다(한진아, 2012).

이렇듯 서울시 물가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더 높았으며, 실제 체감물가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울시의 높은 물가수준으로 인해 서울시 장애인가구는 전국 장애인가구에 비해 생활여건의 박탈이 더 심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삶의 수준은 더 낮아져서 추가비용이 더 높게 계측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빈곤율도 급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삶의 수준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계측한 후 추가비용의 빈곤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월평균 경상소득은 낮으며, 경상소득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매우 낮았다. 박탈지표인 삶의 수준 점수는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서 삶의 수준은 약 2배 이상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수준 접근방식을 통해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계측한 결과 월 57.3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비해 약 2~3배 더 많은 것이었다. 장애인가구에 추가비용을 적용할 경우 절대빈곤율이 비장애인가구의 절대빈곤율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빈곤율 40%, 50%, 60%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비용을 적용하게 되면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의 차이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가구의 빈곤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삶의 수준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계측한 추가비용을 빈곤계측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 및 추가비용 지출에 대해 장애인연금제도¹⁸⁾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포함)제도¹⁹⁾를 통해서 보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연금 제도는 수급대상자를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

50% 미만 25.7%로 나타났다.

17) 2005년을 100으로 기준한다.

18)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제도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 1·2급과 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도입된 무기여식 공적부조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12).

19)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3~6급)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경증장애수당을 1인당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1~6급)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정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장애인가구의 낮은 소득을 대체할 만큼의 수준이 되지 못해서 실질적인 장애인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박은수, 2011).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에게 시비 전액으로 월 3만 원의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시비 전액으로 월 5만 원의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2011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예산 백서 IV: 74)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서울시의 장애수당에 대한 추가 지원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서울시 장애인가구의 삶의 수준 향상과 빈곤 완화를 위해서 추가비용 급여에 대한 급여 대상자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향상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계측에서 삶의 수준 접근방식은 다른 추가비용 계측 방식에 비해 방법론적 우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외국의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추가비용 계측으로 삶의 수준 접근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에게 추가로 지출하는 항목의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물어보는 주관적 접근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과소 추정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윤상용·김태완, 2009). 따라서 장애인연금제도와 서울시의 장애수당이 실질적인 추가비용 급여로서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삶의 수준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계측된 추가비용을 서울시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수준 접근방식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삶의 수준 접근방식에서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비용을 계측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

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삶의 수준 접근방식의 추가비용 계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서울시 복지패널조사 자료는 소득과 재산조사에서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이 과대 추정되었으며, 빈곤율 또한 높게 나타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시 복지패널조사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삶의 수준 접근방식을 활용한 추가비용 계측에서 서울시의 생활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 타 시·도의 생활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가비용 계측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김교성, 2010, “서울시 가구 빈곤의 원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정책』, 17(1): 215~240.
- 김성희·변용찬·손창균·이연희·이민경·이송희·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 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근, 2006, 『u-Can 회귀분석』, 서울: 인간과 복지.
- 박은수, 2011, 『장애인 소득보장론: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파주: 나남.
- 백학영, 2007,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용찬·윤상용·김태완·이정선, 2006, 『장애수당제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09, 『200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윤상용, 2006, “장애인의 추가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0(3): 65~89.
- 윤상용·김태완, 2009,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 및 장애 추가비용의 빈곤 영향력”, 『재활복지』, 13(1): 61~83.
- 이선우, 2005,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에 대한 연구: 삶의 수준 방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 28: 215~242.
- _____. 2008, “장애인가구의 장애종류 및 장애 정도별 추가비용 계측: 삶의 수준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정책』, 32: 7~26.
- _____. 2009,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따른 빈곤을 비교: 삶의 수준 접근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연구』, 40(4): 431~452.
- _____. 2012, ‘2012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이익섭·정소연, 1997, “소득보장정책의 근거를 위한 장애아동가정의 추가비용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연구』, 1(1): 112~142.
- 임재현, 2012, “장애인가구의 빈곤특성과 빈곤결정요인 연구: 비장애인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희정, 2012, “OECD 국가 중 국내물가가 높은 이유” 『서울경제』, 2012년 2월호: 3~10.
- 한진아, 2012, “경제동향/물가”, 『서울경제』, 2012년 7월호: 60~61.
- Berthoud, R., Lakey, J., and McKay, S., 1993, *The Economic Problems of Disabled People*, London: Policy Study Institute.
- Burchardt, T., 2003, *Being and becoming: social exclusion and onset of disability*, ESRC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Report 21, London School of Economics.
- Cullinan, J., Cannon, B., and Lyons, S., 2008, *Estimating the Economic Cost of Disability in Ireland*, ESRI Working Paper No. 230.
- Elwan, A., 1999, *Poverty and Disability: a survey of the literature*,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Series No. 9932, The World Bank.
- Gannon, B. and Nolan, B., 2006, “The Impact of disability transition on social inclusion”, *Social Science & Medicine*, 64: 1425~1437.
- Indecon, 2004, *Report on the cost of Disability*, Indecon International Economic Consultants.
- Jenkins, S. and Rigg, J., 2004, “Disability and Disadvantage: Selection, Onset and Duration Effects”, *Journal of Social Policy*, 33(3): 479~501.
- Jones, A. and O'Donnell, O., 1995, “Equivalence scales and the cost of disabil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6(2): 273~289.
- Kuklys, W., 2004, *A Monetary Approach to Capability Measurement of the Disabled Evidence from the UK*, Max Plank Institute of Economics, Discussion Paper on Strategic Interaction.
- Meyer, B. D. and Mok, W. K. C., 2008, *Disability, Earnings, Income and Consumption*, The Harris School of Public Policy Studies, Working Paper Series #06.10, The University of Chicago.
- Saunders, P., 2007, “The Costs of Disability and the Incidence of Poverty”,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42(4): 461~480.
- Tibble, M., 2005, *Review of existing research on the extra costs of disability*,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Working Paper No 21.
- Zaidi, A. and Burchardt, T., 2005, “Comparing incomes when needs differ: Equalization for the extra costs of disability in the UK”,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1(1): 89~114.
- _____. 2008, “Disabled Children, Poverty and Extra costs”, In Strelitz, J. and Lister, R.(Eds), *Why money matters: Family income, poverty and children's lives*, Save the Children Fund.
- <http://disability.seoul.go.kr/>(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 <http://mulga.seoul.go.kr/>(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
- <http://panel.welfare.seoul.kr/>(서울시 복지패널 홈페이지)
- http://www.ableforum.com/pnc/modules/h2_board/h2_board_filedown.php?code=h2b_material_forum&uid=108,00&fid=4(2011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예산백서 IV)
- 원 고 접 수 일 : 2012년 7월 30일
1차 심사 완료 일 : 2012년 8월 22일
2차 심사 완료 일 : 2012년 9월 10일
최종 원고 채택 일 : 2012년 10월 8일